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양 · 한방협진진료의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양 · 한방 융합 뇌건강 클리닉’ 개설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금까지 축적된 동국대학교병원의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14일 ‘양 · 한방 융합 뇌건강 클리닉’을 개설했다. 이번엔 새롭게 선보일 양 · 한방 융합진료는 치매, 건망증, 불면증 등의 질환에 대해 양방과 한방의 경계를 허문 환자중심의 진료로 구성되며 양방교수와 한방교수가 통합진료실에서 동시에 진료함으로써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치료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를 담당한 신경과 김광기 교수와 한방신경정신과 구병수 교수는 6개월 이상 연구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최적화된 양 · 한방별 검사와 치료모델을 개발했다. 기억력검사(SNSB), 뇌파검사 등의 양방검사와 가속도 맥파검사, 혈액어혈검사 등의 한방검사가 조화를 이루어 최상의 검사결과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환자 증상에 따른 3가지 패키지 프로그램은 양 · 한방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다. 양 · 한방 융합 뇌건강 클리닉은 조기 진단을 통한 치매예방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는 뇌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한다. 매주 목요일 오전에 진료가 있으며 앞으로 진료 세션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02 동국대학교의료원, 고양시 조계종주지협의회 및 신도연합회와 발전기금 전달식 및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의료원은 13일 명성세미나실에서 고양시주지협의회(회장 보산 스님), 고양시 조계종 신도연합회(회장 이금석)와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시 조계종 주지협의회 스님과 신도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협약식에서는 동국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지원 등의 행사를 지원하고, 고양시 조계종 사찰과 신도는 병원 홍보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 첫걸음으로 고양시주지협의회와 신도연합회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발전기금 5천만 원 기부를 약정했고 1차로 500만 원을 전달했다. 보산 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상생하여 고양시 불교의 중심센터가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고양시 조계종 사찰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진호 동국대학교의료원장은 “불교계의 관심과 도움을 받은 것만큼 오늘을 기회로 스님들과 불자들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병원의 근본인 봉사와 헌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치고, 고마운 뜻을 깊이 새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에 격려차 방문한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여 개원 1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많은 만큼, 최고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교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격려했다.



03 5월 가정의 달, 남양주시 별내동 ‘효 잔치’ 의료봉사 다녀와

교직원불자회 연우회(회장 구병수)는 12일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열린 ‘효 잔치’에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이날 의료봉사는 지도법사 증취스님, 정형외과 이상형 교수, 한방침구과 이승덕 교수, 조수정 전공의 등 15명의 연우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23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에게 양 · 한방 진료와 건강상담 등의 의료봉사활동과 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하는 선물(한방파스, 경구용 종합영양제, 음료 등)을 지원했다. 효 잔치에 참석한 어르신은 “양 · 한방 진료와 약 처방까지 받고, 거기에서 건강기원 선물까지 한아름 들고 가게 되어 내가 복 받았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연우회는 승가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봉사를 통해 자비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04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초청특강

간호부는 국제간호사의 날을 기념하여 재직간호사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대강당에서 초청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김진영 세브란스병원 창익센터장을 초빙하여 ‘지금, 그리고 미래를 향한 간호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김진영 창익센터장은 “환자 중심, 환자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변화된 서비스(PEM, Patient Experience Management)를 병원이 제공해야 한다.”며 “그 혁신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연하여 참석한 간호사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참석한 간호사는 “진심이 담긴 배려로 환자의 시각에 맞춰 살피고 개선하는 간호사로 변화하고 환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간호사의 날은 간호사들의 공헌을 기릴 목적으로 나이팅게일 생일에 기념일을 지정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44회를 맞이했다.



주인공 28호

보험심사팀

최해송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번주 주인공은 병원 개원 때부터 쪽~박온 보험심사팀 최해송 파트장입니다. 개원초, 수가라든지 기타 업무에 익숙하지 않을 때 보험심사팀에 찾아가면 항상 바쁘게도 언제나 밝은 미소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곤 했습니다. 심사팀에서는 하찮은 업무여서 귀찮고 짜증이 날만도 한데 한결같은 모습을 보고, 저도 검사실에서 일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최해송 파트장을 따라하고 싶은 결정적인 이유는 언제 어디서든, 지위를 떠나서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밝은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최해송 파트장을 만나 보세요. 그분을 보고 나면 안좋았던 일상이 밝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마법에 걸리게 됩니다. 밝은 인사만으로도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맘에서 진정으로 하는 밝은 인사는 어떤 이야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데서 찾아보면 어떨까요. 나의 주위사람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것들요!!!

안 과 이 호 석

알 리 미

마하연실내악단 음악회

일시 : 2015년 5월 18일(월) 12:00~13:00 | 장소 : 1층 로비

민화 전시회

기간 : 5월 18일(월) ~ 5월 30일(토) | 장소 : 1층 로비

뉴코아아울렛 건강강좌

일시 : 5월 21일(목) 12:00~13:00 | 장소 : 뉴코아아울렛 일산점 9층 문화센터
주제 : 갱년기치료와 관리 그리고 당뇨 | 강사 : 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

동구보건소 건강강좌

일시 : 5월 20일(수) 10:00~11:00 | 장소 : 일산동구보건소 1층 건강누리
주제 : 복부비만 | 강사 : 가정의학과 김유일 교수